

# 양과 부엉이가 키운 포도로...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02

“노 매직(No Magic).”

와인메이커는 마법사가 아니다. 그 저그런 포도로 좋은 와인을 만들어낼 비법은 없다. 좋은 와인을 만드는데 있어 모든 것은 포도에서 시작된다.

이 땅에서 난 와인이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가 됐다면 우리의 역할은 포도밭 역시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터. 그 유명한 ‘파리의 심판’으로 나파밸리 부흥을 이끌었고, 이젠 재생농법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와이너리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이하 그르기치 힐스)’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그르기치 힐스에서 수출매니저를 맡고 있는 마야 제라마즈(Maja Jeramaz)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기농법을 넘어 20년째 재생농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포도밭 관리에 있어 인위적인 계획을 배제하고 가능한 자연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르기치 힐스는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1위를 차지한 와인의 양조자 마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의 수출매니저 마야 제라마즈(Maja Jeramaz)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그르기치 힐스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크 그르기치와 사업가 오스틴 힐스가 세운 와이너리다. 그르기치 가문이 와인 양조와 와이너리 경영을, 힐스 가문이 자본 투자를 맡았다. 50대 50의 지분 구조는 여전히 유지 중이며, 마이크 타계 이후엔 그의 딸인 바이올렛 그르기치가 경영을, 조카 이보 제라마즈가 양조를 담당한다. 마야는 3세대로 이보의 딸이다.

마야는 “인위적으로 땅을 개간하지 않고, 2월이면 양을 빌려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자란 커버 크롭(Cover Crop)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며 “부영이가 해충을 잡아먹고, 다양한 식물



왼쪽부터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소비뇽 블랑,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샤도네이,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로제,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멀롯,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카버네 소비뇽,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온트빌 올드 바인 카버네 소비뇽.

/안상미 기자

과 동물이 포도나무와 공존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로 보면 나파밸리는 흥미로운 곳이다.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바람이 불어와 남쪽이 시원서늘하고, 북쪽의 기온이 더 높다.

그래서 그르기치 힐스를 알아가는 여정은 남쪽부터 출발한다. 소비뇽 블랑과 샤도네이는 남부에 위치해 서늘한 카르네로스와 아메리칸 캐년에서 재배한 포도를 쓴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소비뇽 블랑’ 2022는 신선하면서 오 크 뉴앙스가 은은하다. 필요이상의 날

카로움 없이 긴 여운으로 10년 안팎의 장기숙성도 가능하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샤도네이’는 그르기치 힐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와인이다. 나파밸리 샤도네이라고 하면 두툼한 오크 풍미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르기치 힐스는 좋은 산도로 신선함을 잘 지켰다. 미국보단 유럽 스타일이다. 2022 빈티지는 섬세한 꽃향기에 잘 익은 과실, 생동감 있는 산도로 여운이 길게 남는다. 지금도 좋지만 산도가 워낙 좋아 10~15년 추가 숙성도 가능하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로제’는 2016년부터 만들었다. 여타 로제와 달리 소비뇽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진관텔과 소비뇽 블랑도 블렌딩 했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카버네 소비뇽’은 카버네 소비뇽에 멀롯, 뽀띠 베르도, 카버네 프랑을 섞은 전형적인 보르도 블렌딩으로 만들었다. 2020는 잘 익은 과실향과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어우러진다. 부드러운 타닌을 좋은 산도가 받쳐주고, 여운은 길게 남는다.

산불로 난리가 났던 2020 빈티지에 대한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 그르기치 힐스의 포도는 정말 검사까지 거쳤지만 영향이 전혀 없었다. 포도껍질이 건강하고 두꺼워 연기가 침투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온트빌 올드 바인 카버네 소비뇽’ 2019는 1959년에 식재된 올드 바이너리로 양조했다. 나파밸리에서 손꼽히는 산지인 온트빌에서는 가장 오래된 카버네 소비뇽, 나파밸리 전체로도 두 번째로 오래됐다. 지난 2023년 설립자 마이크의 100세 생일을 기념한 와인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도 더 집중력 있고, 힘이 있어진다. 타닌은 부드럽고, 농축미와 복합미가 인상적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 롯데컬처웍스, 내달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개최

종합 콘텐츠 기업 롯데컬처웍스가 크레디아뮤직엔터테인먼트와 함께 ‘2025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클래식, 뉴에이지, 대중음악, 뮤지컬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선보이는 시리즈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12월 24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HOME’으로 페스티벌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의 패밀리 클래식 콘서트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선율’이 펼쳐진다.

12월 26일에는 김광진 겨울 콘서트 ‘The Treasure’를 개최한다. 12월 27일, 연말 시즌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콘서트 ‘2025 Year End Concert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이 올해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12월 28일 대한민국 최초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The M.C가 20주년을 기념하여 김문정 음악 감독과 함께 콘서트를 연다.

‘2025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은 클럽발코니, 롯데콘서트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예매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 메가박스, 네 번째 ‘돌비 비전+에트모스’ 특별관 오픈

메가박스가 오는 14일 서울과 경기 서북부의 관문인 고양스타필드점에 ‘돌비 비전+에트모스’ 특별관을 정식 오픈한다. 지난 6월 구의 이스트폴점에 첫 선을 보인 후 목동점과 청주터미널점에 이어 국내 네 번째며, 총 218석 규모다.

‘돌비 비전+에트모스’는 돌비가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와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에트모스’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이다.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는 일반 프로젝터 대비 두 배 이상 밝기와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통해 풍부하고 깊은 색감을 제공해 더욱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을 즐길 수 있다. 이에 더해 돌비 에트모스가 제공하는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는 영화 장면 속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또한 고양스타필드점 ‘돌비 비전+에트모스’관에서는 카네기홀,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 최고의 공연장들이 선택한 음향 전문 마이어 사운드 스피커로 최적의 돌비 에트모스 음향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 완벽주의란 중병을 치유하는 8가지 처방전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일을 제시간에 마치기 힘들다”는 푸념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다. 필자도 그중 하나다. 왜 이런 성정을 갖게 됐나 성장 과정을 돌아켜봤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학교 다닐 적에 97점을 맞은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져왔더니 “자꾸 덩벙대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 100점을 못 맞은 거다”는 잔소리를 들었다. 매번 이런 식이니 완벽주의가 생길 수밖에. 많은 한국인이 이런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채찍질을 맞고 자란 탓에 완벽주의란 중병을 앓는다.

‘나태한 완벽주의자’는 노트에 가득 적힌 두 리스트(할 일 목록)를 보면서 한숨만 짓는 이들을 위한 마음 처방전이다. 저자는 완벽주의자들이 일을 미루는 ‘게으름의 패턴’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원인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닌, 다음 단계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시간을 들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숙고하는 과정을 가져보라고 조언한다. “난 할 수 없어”라며 패닉에 빠진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포용하라”면서 행동과 감정을 분리해 다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실패하면 안 돼”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는 “실패를 배움으로, 도전을 기회로 새롭게 정의하라”는 충고를 건넨다.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행동



나태한 완벽주의자

피터 홀린스 지음/박정은 옮김/넥서스BIZ

할 수 없어”라며 늘 누워만 있는 친구에게는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피로감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찬찬히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이야”라고 포기를 선언한 이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을 극복할 마음 챙김 명상을 제안한다. “일단 재밌는 것부터 하고, 일은 나중에 해야지”라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친구들에게는 “의지를 다잡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꾸준히 실천하라”는 해결책을 준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영망이야”라며 낙담한 사람들에게는 ‘평온의 기도’를 권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22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트럼프 관세에 부정적  
▲ 미 민주당 4일 선거 승리… ‘셋다운 사태’ 장기화 가능성

▲ 루브르 절도범 1명, ‘미술관 경비원 경력 전과 15범 유튜브’  
▲ 中, 대미 24% 추가관세 1년 유예…10% 기본세율은 유지



▲ 日 다카이치, 94조원 규모 추경 추진…방위·AI 투자 확대  
▲ ‘일본인 모녀’ 사상 유족…“한국 음주운전 처벌 강도 우려”

메트로 한줄뉴스